

상징처럼 떠올리는 ‘뱃전의 통나무’

나를 한국으로 이끈 김소운님의 글

도다 이쿠코

작가·주부



도다 이쿠코씨.

한국에서 결혼하고 지금 당연한 듯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원래부터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누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면 “전혀 관심없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것은 나 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나를 한국으로 이끌어 준 사람은, 처음 찾은 서울에서 만난 김소운 선생님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쓴 책 《한이불 속의 두나라》에도 소개했다. 그 때 김소운 선생님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제시대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름다운 일본어에 매료

일주일 동안의 한국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나는 심한 ‘한국 상사병’에 걸렸다. 그만큼 처음 만난 한국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말은 잘 안했지만 같은 대학생끼리 지냈던 시간이 아주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아사히 신문 석간에 김소운 선생님의 수필이 실렸다. 최근의 한일관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낸 수필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학교 수업이 끝나자 신주쿠에 있는 큰 서점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타기가 무섭게 책을 열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新潮社)라는

에세이집이었다. 그 책을 통해서 나는 김소운 선생님이 벌써 오래 전에 일본에서 《조선시집》《조선동요선집》《조선민요선집》 등을 출판해서 호평을 받은 것을 알게 됐고, 김소운 선생님의 정확하고 아름다운 일본어에 사로잡혔다. 그때부터 나는 어느 서점에 가도 먼저 김소운 선생님의 책을 찾고, 있으면 바로 구하는 열렬한 애독자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나 분노를 담담하게 그리면서 독자를 울리게 하는 문장력, 정확하다는 수준을 넘어 아름답고 오히려 문필가인 내가 교본으로 삼아야 할 정도의 일본어 표현력에 나는 질투심마저 느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열심히 읽다가 이 작가가 틀림없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감동과 더불어 나의 일본어 실력이 미숙함이 부끄러워졌다.

김소운 선생님의 일본어에 반한 독자는 나뿐이 아니다. 문학자나 대학교수, 편집자나 일반독자까지 김선생님의 저작을 읽고 울고, 감동하고 영향을 받은 일본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나는 너무나 서글프다.

요즘도 나는 가끔씩 김소운 선생님의 책을 손에 잡는다. 김선생님이 일본에서 출판한 저서를 나는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 몇 권은 아는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가 안 돌아오고 몇 권은 친한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집에 있는 몇 권 중에서 내가 항상 보는 것은 《이 하늘 끝에 살면서》(講談社 文庫)에 있는 ‘뱃전에 있는 통나무’라는 장이다.

몇 분 안되는 동전을 쥐고 오사카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쿄로 올라간 열네살 때 김소년 이야기에 이어서, “어린시절 보냈던 미키노시마... 거기와 부산을 이은 기선 뱃전에는 틀림없이 짧은 통나무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다. 배가 선창에 닿을 때 충격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루에 30번, 50번 선창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 통나무는 서로 부딪치고 삐걱거리면서 점점 가운데가 패인 절긱대 같이 소모된다. ... 어린시절에 무심히 쳐다봤던 그 통나무가

그후 오랫동안 나의 머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도 이 통나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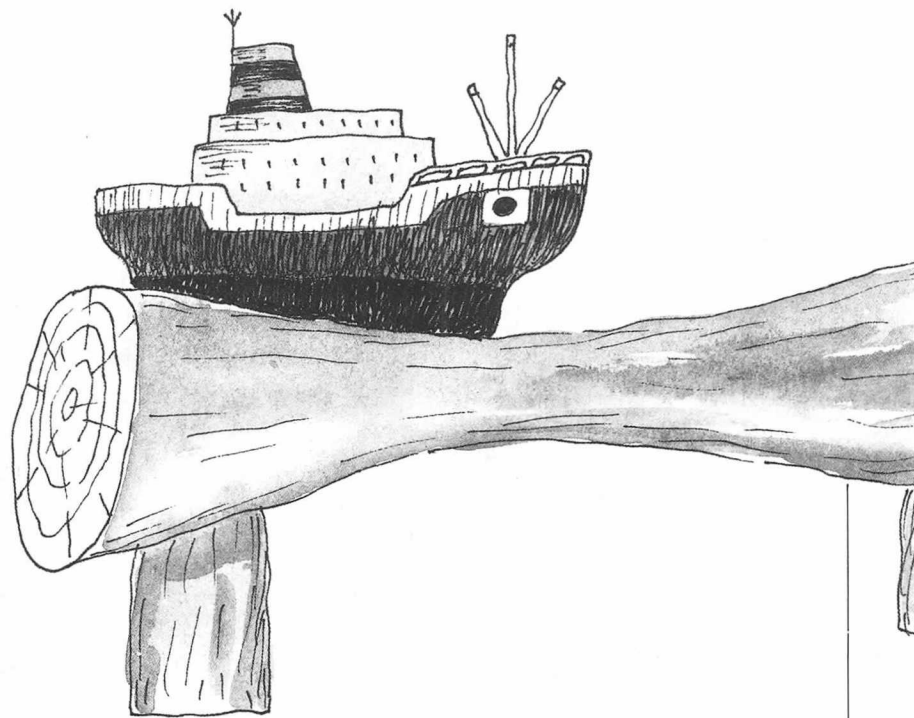
부두와 배 사이에서 점점 패어진 그 통나무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생활 전통이 다르고 이해가 대립하는 두 민족 사이에 이런 방패물 없이 어떤 제휴나 제대로 된 문화교류가 있을 수 있을까. 뱃전의 통나무는 영웅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다. 패이고 여위고 끝내는 소멸하게 되는 것... 그러나 만일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족을 위해 의검(義劍)을 휘두르는 것보다 백배 천배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닌가. 이웃인 두 민족의 마치 끝도 없는 시이소 놀이 같은 갈등과 마찰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릴 때 봤던 뱃전의 통나무를 자기 자신의 상징처럼 마음에 떠올린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지금 나는 전혀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사실이다. 나에게 한일 간의 정감다리가 되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 속에서 김선생님의 그 글을 반복해 읽는다. 거창하고 화려한 다리 역할은 원하지 않고 뱃전에 매달린 조그마한 통나무나 되었으면 해서. 한국과 일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복잡하고 멀어져만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도 금방 풀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한일 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해진다. 상대방이 일본인이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거나 욕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서 화가 나는 날도 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때 그 수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한국인 남편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한국 가정의 일원으로 지금 이 나라에 사는 나를 한국으로 오게끔 해준 사람, 그분이 바로 김소운 선생님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